

# 국가권력이 저지른 야만행위의 실제 파헤쳐

## 《한국 현대정치 악몽 — 국가폭력》 펴낸 조현연 교수

조현연 교수가 펴낸 《한국 현대정치 악몽 — 국가폭력》은 한국 정치사를 지배한 '악령'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근현대사를 생생히 증언한다. 민주화로 국가폭력의 강도가 약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분석한 조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인간말살의 정치를 합법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승만 정권 이래 출몰한 국가폭력이라는 '악령'은 박정희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더욱 강고해지고 제도화됐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의 충돌과정에서 빚어진 국가폭력과 '살(殺)의 정치'로 얼룩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현연 교수(39,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가 펴낸 《한국 현대정치 악몽 — 국가폭력》(책세상)은 '폭력과 광기'로 점철된 우리 근현대사를 파헤친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국가권력이 저지른 야만 행위를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 일제 강점기에서 국가폭력의 연원 찾아

“국가폭력은 ‘법과 질서’라는 말 뒤에 교묘하게 은폐돼 있죠. 국가폭력과 살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번도 국가가 저지른 죄악을 단죄한 적도 없고,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국가폭력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조교수는 국가폭력의 뿌리를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찾는다. 일본의 통치는 '일본=문명, 조선=야만'이라는 논리의 거죽을 뒤집어 쓴 극단적인 파시즘 체제였고 총독의 명령이 곧 법이라는 노골적인 공적 폭력체제였다. 그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폭력은 본격화되고 분단 이후 냉전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부의 적에 대한 통제까지 나아가게 됐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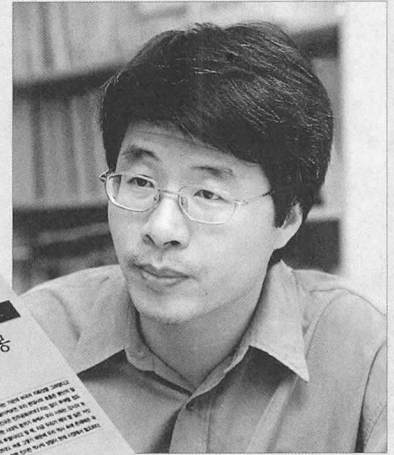
“이승만과 박정희 시절, 공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권력으로 이용됐습니다. 특히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됐을 때 폭력의 강도는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정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빨갱이 사냥’이 시작됐고 공안정국이 조성됩니다. ‘내부의 적은 죽여도 좋다’는 인식 하에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이 자행됐던 거죠.”

이 책은 국가폭력의 유형을 크게 국가에 의한 직접살인과 간접살인으로 나눠 정리하고 있는데,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의 형식은 민주화의 진행과 맞물리면서 형태가 변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에는 민간인 집단 학살, 정적(政敵) 살해, 고문치사 등과 같은 유형의 직접살인이 자행됐다면, 1987년 이후에는 그 경향이 간접살인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 분신과 투신자살, 주한미군에 의한 살인이 간접살인의 대표적인 예다.

“국가 폭력의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층 더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했을 따름이죠. 하지만 국가폭력과 살의 정치가 완화된 이유는 위에서부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과 국가폭력

조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폭력 네트워크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레드 콤플렉스, <국가보안법>과 그 구체적 실행체인 '남산', 그리고 보수언론과 해바라기 지식인으로 짜여 있다고 설명한다.



조현연 교수

책세상/B6변형/174면/4900원



“국가폭력에 따른 죽음과 고문, 인간 말살의 정치를 합법화한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권력을 쥔 자에게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라 총과 칼,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의 사상과 신체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가 국가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작년 한 학술대회에서 '정치적 의문사'에 관한 발표를 부탁받고 나서였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수많은 죽음과 만나게 됐고 그 실체를 밝히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또 한 가지 있다. 이승만 흉상과 박정희 기념관의 건립 추진이 그것이다.

“11년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의외로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회복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박정희’를 주제로 토론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폭력과 독재와 살육의 화신이었던 그가 근대화과 경제부흥을 일으킨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더군요.”

이 책은 원래 원고지 1천매가 넘는 분량이었다. 편집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가해진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다룬 부분이 부득이 삭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을 계기로 그는 우리 시대의 권력과 그 권력의 추악한 실체를 한층 더 심도있게 파헤쳐볼 작정이다.

— 최갑수 기자